

불교와 문화가 만났다

사람 사는 모습이 곧 문화다. 일상 속에 품고 있는 모습이 나 자신이며 그 속에서 더 나은 삶,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람들은 살아간다. 불교문화란 무엇일까? 부산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은 "신심(信心)이 없는 아름다운 단지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 불교 문화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수행을 통해 신심으로 불교문화를 접하며 불교를 제대로 알고 참 행복을 찾으려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부산 동명불원(주지 정산은 3월 24일부터 수행과 불교문화를 아우르는 불교문화아카데미를 개강해 불자들이 올해 열리는 불교문화아카데미는 기존에 실시하던 수행 프로그램에 문화 강좌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불교문화를 알고 일상 속에 더욱 깊이 불교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행과 문화를 접목시켰다.

3월 24일, 동명불원 불교문화아카데미 개강

"불교문화아카데미가 필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불교문화를 발견해 삶을 풍요롭게 향유하고 불교를 통해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전 공부와 참회 기도를 통해 기복 불교에서 벗어나 불교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화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불교문화를 통해 불자들은 더욱 풍성한 삶을 향유하고 일반인들은 문화를 통해 불교에 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산 스님이 불교문화아카데미를 여는 이유다.

동명불원에서 개최하는 불교문화아카데미는 수행과 문화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즉, 불교 수행

을 통해 알찬 내면을 가꾸고 문화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신심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동명불원은 고심 끝에 수행과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엮는 불교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한 것이다.

불교문화아카데미는 심도 깊은 경전강의가 포함된 수행 프로그램에 비롯해, 불교문화와 생활의 문화 프로그램, 초심자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기초교리반으로 분야를 나눠 강의를 구성했다. 수행 프로그램으로는 '달강경반' '기초교리반' '108 참회기도 정진'이 마련된다. 불교문화 강좌는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과 '해현 스님의 불화이야기'가 각각 5개 주제로 진

행된다.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 강좌는 사찰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으로 인해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관심이 많은 강이다. '해현 스님의 불화이야기'는 참가자들이 직접 불화를 그리며 불교미술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기본 붓 잡는 법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실습뿐 아니라 사찰 문화 및 벽화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수업 시간도 있다.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는 3개월 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108참회기도는 하반기 결계 전까지 매일 오전 5시와 9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나머지 강좌의 강의시간은 6개월이다. <달강경>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와 7시, 해현 스님의 불화이야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열린다. 불교문화아카데미는 앞으로 불교문화 답사반이나 참선반 등 다른 프로그램들도 추가로 편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입재식은 3월 24일 오후 2시 동명불원 법당에서 봉행한다. (051)626-4337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대각사 대각불교청년회

청년불교 30년, 그 열정을 위한 비상

봄 정취가 물씬 묻어났다. 대각불교청년회(회장 신수홍)가 위치해있는 부산 남포동의 저자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의 옷매무새도 가벼워 보인다. 우리나라 제일의 항도 부산의 중심인 남포동에서 청년포교의 요람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청년신행단체 대각불교청년회.

그리고 대각불교청년회는 활발한 포교활동과 함께 법회를 통해 배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과거에는 성우원, 천마재활원 등의 장애인 재활시설과 국군통합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였으나, 1990년도인 18년 전부터 용두산 공원에서 시작된 무료급식 '국수공양'에 매진하고 있다.

이 생일잔치를 해오. 부산에서 30년 역사를 가진 불교청년단체는 저희들뿐 일걸요!" 신수홍 회장의 자리가 대단하다.



1979년 창립, 2000여 불자배출 국수공양봉사활동으로 대통령상

그리고 청년회원들은 '대각 30년, 그 열정을 위한 비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창립 29주년 기념법회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불교청년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 이번 창립법회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다. 보편적인 법요식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불자가 아닌 일반인도 편안하게 동참할 수 있는 일정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페이스페인팅, 한지공예, 네일아트 등 전문 기술을 갖춘 회원들의 지도로 이뤄지는 식전 프로그램과 함께 1부 기념법요식에 이어, 2부 행사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대중 문화공연으로 기획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소속인 대각불교청년회는 1979년 창립한 불교단체로 그동안 무려 2000여 명의 청년 불자들을 배출한 자타가 공인하는 포교의 산실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 조직적 위상이 많이 쇠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만 되면 30여 명의 회원이 법회에 참석해 정진하고 있다.

이 국수공양은 용두산 공원에서 소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노숙자들에게 국수를 삶아 한 끼 점심을 대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매월 30년, 그 열정을 위한 비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창립 29주년 기념법회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불교청년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 이번 창립법회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다. 보편적인 법요식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불자가 아닌 일반인도 편안하게 동참할 수 있는 일정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페이스페인팅, 한지공예, 네일아트 등 전문 기술을 갖춘 회원들의 지도로 이뤄지는 식전 프로그램과 함께 1부 기념법요식에 이어, 2부 행사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대중 문화공연으로 기획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부산 남포동에 위치한 절 대각사, 근대 한국불교 태동기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절에서 활동을 하는 청년단체답게, 대각불교청년회 회원들은 오늘날 우리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내고자 포교의 전선인 광복동 거리에서 홍보 포스터와 전단을 나누고 있다. (051)245-8781

오세룡 부산지사장

동국대 학생에게 2500만원 전달

8일, 석암장학회 제67기 장학금 수여식



동국대 재학생 15명이 3월 8일 석암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전달 받고 있다.

불자인재 양성에 주력해 온 석암장학회(이사장 정련)는 3월 8일 동국대 재학생 15명에게 장학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 67번째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석암장학회 이사장 정련 스님은 "장학금이란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일회성 장학금이 아닌 인연을 맺은 학생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진실한 불자 인재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하겠다"며 "석암장학회는 인재양성과 종립학교 동국

대의 발전을 아울러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8일과 9일 이틀간 내원정사에서 실시하는 템플스테이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앞으로 내원정사 산하의 복지기관 및 재활병원, 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나가고 내원정사는 지원자에 한해 취업의 기회도 부여한다. 장학금 수혜자들은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석암장학회의 후원을 받게 된다. **하성미 기자**

"기도하는 아버지는 행복한 가정의 중심"

의령 유학사 제2차 108예참기도 입재

아버지란 이름은 가정의 든든한 거목(巨木)이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정을 이끄는 진실한 힘이 되며 정신적 기반이 된다. 아버지들의 수행을 돕고 가정과 일상 가운데 수행의 향기가 묻어 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로 의령 유학사(주지 원담)가 '제2회 108예참기도'를 시작한다. 지난해 5월 100여 명의 거수들이 참여한 108예참기도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어 우리 집은 행복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열기를 이어 제2회 108예참기도 입재식을 4월 6일 오전 10시 유학사 극락전에서 봉행한다. 프로그램은 직장을 다

리는 거수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유학사에서 입재식을 봉행한 후 주지스님의 점검과 지도 하에 가정에서 100일 동안 예불과 기도, 108배 수행을 이어간다. 회향은 100일후 연비의 수계 의식으로 마무리된다. 입재법회에는 실상사 학강 법인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다. 또한 가정에서 혼자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학사 본존불 사진과 독송집을 무료로 나눠주며 원만한 회향을 발원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담 스님은 "가정에 불심의 씨앗을 심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 더욱 좋은 아버지로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55)574-2882 **하성미 기자**

초발심자 위한 신행학교

홍법사, '숲속의 신행학교' 열어

기초 교리부터 신행을 익히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홍법사(주지 심산)가 숲속의 신

행학교를 열었다. 홍법사 숲속의 신행학교 한 관계자는 "도심에 있는 사찰이지만 정원이 아름

다워 마치 숲속과 같은 홍법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소중한 인연을 맺길 바란다"며 "초심자들에게 알맞은 신행학교"라고 소개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조계종 신도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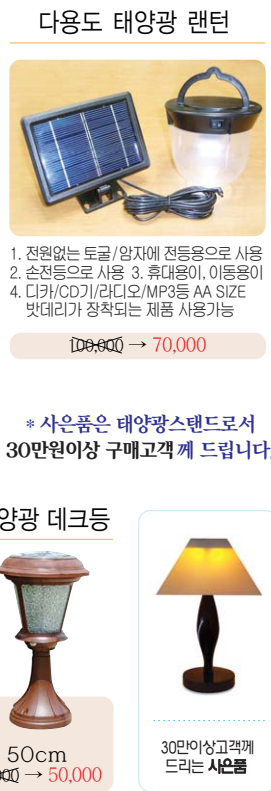
<불교입문>으로 직접 강의한다. 수업은 매주 화,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진행되며 수업 기간은 3개월이다. 접수 마감 3월 31일. (051)508-0345 **하성미 기자**

전기가 필요없는 태양광 정원등

3월 12일 ~ 5월 31일까지

전국 사찰·암자·토굴 및 현대불교신문 독자분께 할인하여 드리며, 작은 사은품도 준비했습니다.

- ◆원리: 상단에 부착된 태양전판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해두었다가 밤에 자동으로 불이 켜진다.
- ◆장점: ·전기가 들지않는다. ·전선이 없으므로 배선공사가 필요없다. ·전구수명은 반영구적이다. 자동으로 충전과 점등이 되므로 부재시 방범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사은품은 태양광스탠드로서 3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드립니다.